

## 심리언어학적분석에 기초한 로어언어행위감수

리 성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들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수 없으며 기술자, 전문가들을 바로 키워낼수 없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0권 486페이지)

현시기 혁명발전의 요구와 과학기술의 발전추세에 맞게 외국어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여나가는데서 외국어의 습득과정에 대한 심리언어학적연구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로어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의의가 있는 심리언어학적분석에 기초한 로어언어행위감수에서 제기되고있는 몇가지 문제들을 분석하려고 한다.

로어언어행위에 대한 감수는 심리언어학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여러가지 특성을 가지게 된다.

첫째로, 로어언어행위에 대한 감수는 사람들의 언어의식에 기초하여 피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로어언어행위에 대한 감수는 사람들의 언어의식에 기초하여 능동적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말을 할 때 서서히 진술내용의 의미를 감수하게 되며 이것으로 하여 언어행위감수가 사람들의 언어의식에 기초하여 피동적으로 진행된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언어로 사물현상을 리해하는 능력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기때문에 언어행위에 대한 감수능력은 인간이 세계를 보다 더 깊이 인식하고 풍부한 언어지식을 소유할수록 보다 더 커지는것이며 인간의 언어의식에 기초하여 언어행위감수는 능동적으로 진행된다.

또한 로어언어행위에 대한 감수는 매우 복잡한 심리-생리적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대상과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의미적감수는 낮은 단계로부터 보다 높은 단계로 연속적으로 균등하게 진행된다.

실례로 말소리들을 감수할 때 사람들은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말소리들에 대한 인식을 진행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이 소리들의 련계속에서 보다 높은 단계에 있는 말소리들에 대한 리해를 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로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단어 учение를 인식할 때 먼저 고립된 말소리들인 글자 [y], [ч], [е], [н], [и], [е]를 개별적으로 인식한데 기초하여 이 글자들을 하나의 말소리흐름속에서 완결된 단어로 인식하게 된다.

둘째로, 로어언어행위에 대한 감수는 글자와 단어를 형태적으로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리해하는 과정으로 된다.

우선 글자를 글자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글자들이 단어나 문장의 전반적인 의미에 맞

게 얼마나 적중하게 배열되었는가에 따라서 빨리 감수한다.

실례로 서로 련계가 되지 않는 글자를 제시할 때에는 제정된 시간에 기껏해야 3~4개의 글자를 기억하며 이 글자들이 단어를 이룬다면 2개의 단어까지 기억한다.

또한 심리언어학적으로 볼 때 단어가 보다 더 많은 글자들로 이루어질수록 사람들은 단어에서 글자가 잘못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기억되어있는 단어로 인식하면서 글자들의 잘못된 결합을 심리적견지에서 감수하지 못한다.

실례로 《противоречие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г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자본주의적재생산의 모순)이라는 로어단어들의 결합이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에서 с자가 빠져 противоречие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ого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а로 틀리게 표기된 경우에 로어를 배우는 일부 학생들은 그러한 단어결합을 옳은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것은 심리언어학적으로 볼 때 단어 воспроизводство를 개별적인 글자들로 정확히 이루어졌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고 단어결합의 앞부분에 제시된 단어들인 противоречие, капиталистический에 의하여 틀린 로어단어 воспроизводтво를 《재생》이라는 단어로 의식하였기때문이다.

셋째로, 로어언어행위에 대한 감수는 로어단어의 음절수와 다의성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로어언어행위에서는 음절수가 적고 단의적인 로어단어들을 감수하기가 쉽다.

실례로 로어단어 снег는 음절수가 적고 단의적인 단어로서 《눈》이라는 뜻으로 명백하게 감수된다. 그러나 로어단어 поймать는 다의적인 단어로서 일정한 환경과 문맥속에서 그 개별적의미가 정확하게 파악된다. 문장 《Кошка поймала мышь.》(고양이는 쥐를 잡았다.)에서 단어 поймать는 съесть의 의미로 쓰이었다면 문장 《Мальчик поймал мяч.》(소년은 뽕을 잡았다.)에서는 단어 поймать는 взять의 의미로 쓰이었다. 이처럼 언어행위에 다의성을 가진 로어단어가 쓰이는 경우에는 그 단어의 문맥적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로어언어행위에서는 심리언어학적견지에서 볼 때 련상적으로 련계되는 단어들을 감수하기가 쉽다.

실례로 로어교수에서 학생들에게 хлеб(빵)이라는 단어를 인식시키면서 хлеб라는 단어와 함께 масло(빠다)라는 단어를 제시하면 학생들은 врач(의사)나 родственник(친척)라는 단어를 함께 제시하였을 때보다 쉽게 단어들의 련관성을 파악하며 인식하게 된다. 《빵》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학생들은 그와 련관되는 식료품들을 련상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빠다》, 《의사》, 《친척》이라는 단어들가운데서 《빠다》는 다른 단어들에 비해 단어 《빵》과 련관성이 강한것으로 하여 감수하기가 쉽다.

넷째로, 로어언어행위에 대한 감수는 로어문장들의 진술성을 옳게 리해하는 과정으로 된다.

언어실천에서는 하나의 로어문장이 상반되는 두개의 의미로 리해되는 경우가 있다.

실례로 하나의 로어문장 《Посеще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ов радостно.》에는 서로 다른 두개의 진술적의미가 있다. 《Когда нас посещают родственники, это радостно.》(친척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면 기쁘다.)와 《Когда мы посещаем родственников, это радостно.》(친척들을 찾아갈 때면 우리는 기쁘다.)라는 문장으로 각각 리해할수 있는데 이 문장들에서는 행동의 주체와 객체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되는 원인은 로어단어들의 결합방식인 지배와 접합표현형식이 서

로 류사하며 활동체남성명사들의 격변화에서 생격과 대격의 형태가 같은데 있다.

우의 실례문장에서 보면 《친척들을 찾아보는것》이라는 진술의 의미는 동명사 посещение가 명사 родственники의 대격형태 родственников와 결합되어 посеще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ов라는 지배형식의 단어들의 결합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에서 《친척들이 찾아오는것》이라는 진술의 의미는 명사 родственники가 생격형태 родственниками로 쓰이면서 규정적의미를 나타내고 명사 посещение가 주격형태로 쓰이면서 посещение родственников라는 단어들의 접합결합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언어현상은 학생들의 로어학습에서 혼란을 가져올수 있다.

일반적으로 로어문장들을 진술내용의 구체적의미에 따라 몇개의 유형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우선 진술내용의 의미가 명백한 단의적문장(однознач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이 있다.

실례로 《Он любит футбол.》에서와 같이 《그는 축구를 좋아한다.》는 문장의 진술적 의미가 명백한 단순문을 들수 있다.

또한 다의성이 약한 문장(легкое многознач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이 있다. 이러한 문장들은 진술내용의 의미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서 큰 차이가 없는 문장이다.

실례로 문장 《Студенты, которые жили в Тюмени, поехали в Москву.》(쥬멘에서 살던 대학생들은 모스크바로 갔다.)와 문장 《Студенты, которые были в Тюмени, поехали в Москву.》(쥬멘에 있던 대학생들은 모스크바로 갔다.)는 《Студенты из Тюмени поехали в Москву.》(대학생들은 쥬멘에서 모스크바로 갔다.)라는 공통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또한 다의성이 강한 문장(трудное временное многозначное предложение)이 있다. 어느 한 문장을 읽는 사람이 그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문맥을 통하여 완전히 파악할 때까지 문장의 진술내용의 의미가 명백치 않는 문장이다.

실례로 문장 《Цыплята готовы к обеду.》은 《Цыплята (живые) готовы поесть.》[(살아있는) 병아리들은 먹이를 먹을 준비가 되었다.]와 《Цыплята (жареные) уже приготовлены к съедению.》[(튀긴) 병아리료리들은 먹을수 있게 벌써 준비되었다.]의 의미로 각각 이해될수 있다.

다의성이 강한 문장에서는 논리적력점을 어느 단어에 주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진술내용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

《Цыплята готовы к обеду.》에서 цыплята에 논리적력점이 떨어지면 점심식사에 《병아리료리》가 준비되었다는 의미로 되며 готовы에 논리적력점이 떨어지면 병아리들이 점심먹을 준비가 되었다는 의미로 된다.

다섯째로, 로어언어행위에 대한 감수는 언어환경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일정한 언어환경속에서 언어행위를 하는것으로 하여 언어행위는 언어환경과 밀접한 련관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일정한 언어환경속에서 문장의 의미를 옳바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것이 중요하다.

실례로 문장 《Карандаш уронил на стол, и он сломался.》에서 문장 《Он сломался.》(그것은 마사졌다.)의 의미는 연필이 떨어지면서 책상에 부딪쳐 꺾어졌다는 의미인지, 책상이 떨어지는 연필에 맞아 못쓰게 되었다는 의미인지 모호하다. 일정한 언어환경을 통하여 《Он сломался.》(그것은 마사졌다.)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실례는 만화해설글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문장 《Мальчик преследует собаку в автомобиле.》의 의미는 개가 차에 있다고 보면 《소년은 차에 있는 개를 쫓아갔다.》로 리해되고 반대로 소년이 차를 타고간다고 보면 《소년은 차를 타고 개를 쫓았다.》로 리해된다. 그러나 이 두가지가 다 아닌 경우도 있다. 그것은 소년과 개가 다 큰 집합차안에 있으며 그 안에서 따라잡기내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차안에서 소년은 개와 따라잡기를 하였다.》로 리해될수도 있다. 만화의 화면을 보고서야 해설글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였는가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다.

사람들은 언어행위를 감수하고 해석할 때 현실에 대한 자기 견해와 일치하는 보다 명백한 해석을 하려고 하며 해석을 해도 단순히 형식적으로 하는데 그치는것이 아니라 문맥 뒤에 숨은 환경(затекстовая ситуация)에 근거하여 정확한 뜻을 밝혀내려고 한다.

제시된 언어자료들을 감수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인간의 의식속에는 언어자료에는 없는 새로운 의미들이 파악되는 경우들이 있다. 인간의 이러한 능력은 그의 심리상태와 관계된다고 볼수 있지만 언어환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사물현상을 어떠한 환경속에서 어떠한 각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분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다양해지는것이다.

여섯째로, 로어언어행위에 대한 감수는 언어행위감수단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언어행위감수는 보거나 들은 언어요소들의 호상관계와 의미에 대한 일정한 견해를 가지는것을 말한다. 언어행위감수는 구체적으로 진술내용을 시각과 청각, 통각을 통하여 받아들이는 단계와 진술내용의 의미를 리해하는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된다.

시각과 청각에 못지 않게 통각에 의한 언어행위감수는 진술내용을 받아들이는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통각(апперцепция)은 지난날의 경험에 토대하여 진행되는 사람들의 언어행위감수이다.

실례로 어떤 사람이 《Расскажите мне [абаварии].》라는 문장을 들었다고 하면 금방 사고를 친 사람인 경우에는 《Расскажите мне об аварии.》(사고에 대하여 이야기하십시오.)라고 들릴것이고 도이칠란드의 바바리아지방에서 돌아온 사람인 경우에는 《Расскажите мне о Баварии.》(바바리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십시오.)라고 들릴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체험한 사실이 언어행위의 감수에 일정한 영향을 주는것과 관련된다.

언어행위감수는 일반적으로 볼 때 소극적인 언어행위로 되지만 적극성을 띠지 않는것은 아니다.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피동적으로만 듣는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들을수 있고 무엇을 대답하여야 하는가 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감수과정은 심리의 내적과정의 한 부분으로 되는 개연적분석과정과 관련된다.

개연적분석과정(вероятное прогнозирование)은 지난 시기의 경험과 현재의 환경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앞으로의 일을 그려보며 그에 대처하는 심리적과정이다.

언어행위를 감수할 때 언어행위의 일반적법칙에 관한 지식은 큰 역할을 한다.

실례로 앞에 《Шел дождь.》(비가 오고있다.)라는 문장이 쓰이었다면 그 뒤로는 《И было холодно.》(그리하여 날씨는 차졌다.) 혹은 《И вышли с зонтиком.》(그리하여 우산을 쓰고 나왔다.)라는 앞의 문장과 의미적연관성을 가지는 문장들이 놓이게 된다. 그러나 《Шел дождь.》 다음에 《И два студента — один в пальто, другой в аптеку.》(두 대학생이 가고

있었는데 한 대학생은 외투를 입고있었고 다른 사람은 약국으로 갔다.)와 같이 앞의 문장과 의미적관련성을 가지지 않는 문장이 쓰이게 되면 언어교제가 이루어질수 없다.

진술내용에 대한 리해는 직접적으로 감수되는 언어의 련속흐름속에 있는 일반적의미에 대한 해석이다. 다시말하여 감수되는 언어행위의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실례로 《Холодно.》(춥구나.)라는 문장을 들은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를 여러가지로 해석한다. 추운 겨울 밖에서 이 말을 들었다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하겠다는 권고의 의미로 리해할것이며 창문이 열려진 방안에서 들었다면 창문을 닫으라는 부탁의 의미로 리해할것이다.

언어행위에 대한 리해는 여러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리해의 가장 일반적인 단계로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기본대상에 대한 감수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듣는 사람은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에 대하여서는 완전히 리해하지 못하지만 교제대방이 일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는것은 감수한다.

2단계는 이야기내용의 의미에 대한 리해단계이다. 말하는 사람의 전반적진술에 대한 해석과정이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가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에 대하여 리해를 하게 된다.

3단계는 어떠한 내용의 문제를 말했는가에 머물러있는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이야기되었으며 어떠한 언어수단들에 의하여 진술되었는가 등 이야기의 동기와 방법 등에 중점을 두는 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듣는 사람은 이야기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게 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무엇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되었는가, 말하는 사람의 진술의도는 무엇인가를 간파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진술의 내적론리를 파악하게 된다.

우리는 로어언어행위과정에 대한 심리언어학적분석을 보다 심화시켜 학생들을 로어실천활동을 주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유능한 혁명인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로어언어행위감수, 심리언어학